

남이섬 간 날

대구 성당초등학교
4학년 3반 이고원

“아빠 일어나요”

“우리 남이섬 가야 되잖아요.”

아침부터 내가 잠 많은

아빠와 사투중이다.

“벌써 6시예요.”

부랴부랴 아빠를 깨워서 차에 타고

남이섬으로 출발!

도착하니 11시 50분이다.

이 시간 공부할 친구들을

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.

주변 풍경을 보니 번지 점프대에서

아주아주 겁 없는 사람들이

하늘을 거꾸로 보면서 매달려 있었다.

그 모습이 마치 박쥐같았다.

그 사람들은 하늘을 거꾸로 보고 있었다.

나는 푸른 하늘을 보고 있는데

그 사람들은 무서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.

그 사이 아빠는 배표를 끊으셨다.

섬 안으로 들어가니

메타세콰이어 나무길이 보였다.

아빠와 나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.

정말 멋졌다.

걸던 중에 하늘을 보니

나무가 너무 빼곡해서

하늘이 잘 안보였다.

그래도 중간중간 보이는 해가 멋졌다.

자전거 대여소에서

커플자전거를 타고 남이섬을 누볐다.

타고 다니던 중에
청솔모와 토끼를 보았다.

위를 보니
봄하늘에 새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었다.

섬을 떠날 때 하늘을 보니
맑고 푸른 하늘을 보았다.
너무 멋졌다.

집에 갈 때 우린 막국수를 사갔다.
물론 막국수는 텅텅 붙어있었다.
집에 도착하니 하늘은 새빨갰다.

남이섬 하늘은 정말 굉장했다.
아빠와 나는 엄마와
텅텅 분 막국수를 먹으며
남이섬 풍경을 이야기했다.
청솔모 부터 노을을 본 것까지 말이다.
다음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가면 좋겠다.